

# 드림 레터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http://www.parents.go.kr)

직업의 세계는 어떻게 바뀔까요?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2030년,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직업을 구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현존하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사람의 업무를 대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단순 반복 업무가 인공지능이나 무인화 장비로 대체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청소년들은 진로 탐색 과정에서 ‘내가 꿈꾸는 직업이 미래에도 살아남을까?’라고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진로 선택을 앞두고 고민이 커지는 자녀에게 학부모님이 해 줄 수 있는 조언은 무엇일까요?

학부모님과 자녀가 직업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자녀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일자리 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무·행정, 제조·생산 분야 등 단순 업무를 하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즈니스·금융이나 경영, 컴퓨터·수학, 교육 분야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일자리는 약 700만 개,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약 200만 개로 전망됩니다. 기계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과 낮은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

- 육체활동이 많은 업무
-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는 직무(생산직, 판매직 등)

### 대체 가능성이 낮은 직업

- 감성과 지식이 필요한 직업(서비스직, 연구직 등)
-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사회복지사, 교사 등)
- 지식과 경험, 판단력 모두 중요한 직업(행정가, 법률가 등)

## 주요 직업으로 보는 인공지능 대체 가능성도



※ 수치가 높을수록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음.

출처 : 전국학부모지원센터(2017), 2017 학부모교육 모델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요?>

## 미래 직업세계의 진로탐색 나침반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녀가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꿈과 진로의 세계를 넓히려면  
미래 직업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앞으로 나타날 주요 변화는 무엇이고,  
이에 따른 직업의 변화 방향이 어떠한지 알아보면 자녀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출처 : 전국학부모지원센터(2017). 2017 학부모교육 모델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요?>

자녀의 진로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직업이 미래에 완전히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직업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자녀가 준비해 왔던 진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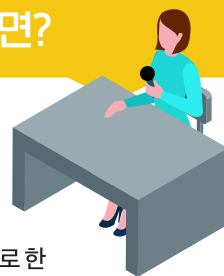
### 진로가 '약사'인 자녀라면?

미래에 단순 업무인 약제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약학에 관심을 보이는 자녀가 미리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신약 개발이나 건강 상담, 건강 플랜 기획 등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의 역할 변화에 따라 자녀는 진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꾸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진로가 '기자'인 자녀라면?

1~2초 만에 기사를 완성하는 인공지능 기자는 신속하게 뉴스를 전달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사람은 가치 판단과 취재를 중심으로 한 기획 기사를 더 많이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꿈이 기자라면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분야별 전문기자의 기사를 많이 읽고, 깊이 있는 기사 쓰기를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 직업 이모저모

#### 2020년 직업 종류와 신생 직업

2020년 현존하는 직업의 종류와 신생 직업을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라진 직업도 있지만 새로 태어난 직업이 더 많습니다. 자녀와 함께 미래직업의 세계를 탐색해 봅시다.



한국고용정보원(www.keis.or.kr)

> 발간물 > 인포그래픽으로 본 노동시장 ▲